

자비의 순간

쟁 파커

지난 몇년간 주님의 수난 성무일도, 특히 15 번째 시편은 저에게 점점 더 소중해졌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주님의 탄생을 기리기위해 이 시편 기도를 만드셨고, 성탄기간 동안 매일 다섯번씩 이 기도를 바치셨다고 합니다. 작년에 저는 사부님만큼 자주는 아니지만 매일 이 기도를 지향하였고, 이 기도는 저에게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날의 어려움들이 무겁게 느껴지던 어느 날 밤 이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매절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가던 중, “그 날 주님이 당신 자비를 베푸시니 밤에 저는 그분께 노래 부르리이다”는 사부님의 말씀이 갑자기 다가왔습니다. 그 밤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기쁨이 저를 채웠습니다!

“그날”은 성탄이고 “자비”는 예수님이십니다! “밤의 노래”는 천사들의 “하늘 높은 곳의 하느님께 드리는 찬미” 노래입니다! 성탄이 아버지의 자비의 선물의 잔치라는 깨달음에 저는 기쁨에 쌓였습니다. 그 자비의 순간 저에게 필요한 평화와 희망을 찾았습니다.

자비의 해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이 대림시기에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자비의 얼굴 (Misericordiae Vultus) 칙서 첫 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자비의 얼굴이십니다”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자비와 우리의 길고 긴밤에 노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엮시다! 이번 성탄은 “자비의 순간”으로 축하합시다!

자비의 해 동안 매 타우지에 신여질 “자비의 순간” 기고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누고 싶은 자비를 주거나 받았던 나의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tauusa ofs@gmail.com 로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많은 여러분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시편 15 주님의 성탄 저녁기도

환호하여라. 우리의 도움 하느님께!
기뻐 소리치며 “살아 계시며 진실하신 주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분
경외로우신 분, 온 땅의 위대하신 임금이시기 때문이로다.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 임금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천상 아버지께서
높은 곳에서 사랑하는 당신 아드님을 보내시어”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기 때문이로다”.

“그는 “그분을” 불러 ‘당신은 저의 아버지’ 하리니,
“그분은” 그를 받아들로, 세상 임금들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셨도다.

그날 주님이 당신 자비를 베푸시니
밤에 저는 그분께 노래 부르리이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로소이다”
“여관에는 그들이 머무를 곳이 없었기에

여행 중에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 구유에 눕혀졌나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주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좋은 뜻을 지닌 사람들에게 평화!”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어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르,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보다 경외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로다.

주님께 드려라, 못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영예를.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너희 몸을 바쳐 그분의 거룩한 십자가를 져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계명은 끝날까지 지켜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